불교포럼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줄 가운데)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김형주 기자

‘불교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 내년 1월 출범

강윤구 건보평가원장 등 사회 각 분야 14명 집행·지도위원도 위촉

총무원장 자승스님 “여러분 경험과 식견 종단 발전의 디딤돌”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불자 지도자간의 네트워크인 가칭 ‘불교포럼’이 내년 1월 출범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가칭 ‘불교포럼 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사회각 분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불교포럼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서원한 종단 4개년 발전계획 가운데 주요과제인 ‘사회 각계 불자들의 네트워크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교포럼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지도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종단은 불자 지도자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지도자들의 경험과 식견을 종단의 종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불교포럼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 상호 소통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모임과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포럼 등을 진행하고 신행활동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법조, 문화예술, 출판, 교육, 청와대, 경제, 언론, 행정부, 보건의료, 체육, 대중문화, 경찰, 군대 등 각 분야 지도자로 결성됐다.

각 분야 좌장격인 불교포럼 추진위원회 지도위원은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공공기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법조),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문화예술), 김종규 삼성출판사 명예회장(출판), 김희옥 동국대 총장(교육),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청와대),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경제), 박진열 한국일보사 사장(언론), 설동근 교육과학부 제1차관(행정부), 성상철 한국병원협회장(보건의료), 이기흥 대한수영연맹 회장(체육), 이정길(대중문화), 이택순 전 경찰청장(경찰), 최용림 국방부 특별검열단장(군대) 등 총14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집행지도위원으로 김종호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가 위촉됐다.

이와 더불어 각 분야별 실무업무를 담당할 집행위원으로 권범선 동국대 일산병원 재활의학과장(보건의료), 김봉석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법조), 배우 김혜옥(대중문화), 박기련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총괄), 박상관 동국대 대외협력실장(교육), 성기홍 대한체육진흥공단 본부장(체육),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장(언론), 조문배 불교방송 경제부 기자(경제), 임명배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공공기관),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교육), 한명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청와대) 등이 위촉됐다.

조계종은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더 강화해 오는 2012년 1월31일 150여 명의 불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불교포럼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장과 함께 단주를 선물했으며 기념관 지하2층에서 사찰음식으로 저녁공양을 함께하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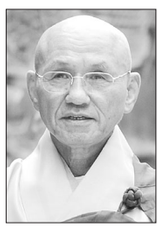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격려사를 통해 “사회 각 분야 지도자로서 모범적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종단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전문식견을 주시면 종단 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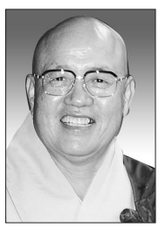
영화사 내원정사 군법당 건립비 보시

서울 영화사(회주 월주스님)와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스님)가 육군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비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쾌척했다.

영화사 총무 화평스님과 내원정사 총무 지일스님은 회주 월주스님과 주지 정련스님을 대신해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비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영화사와 내원정사는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포교, 복지사업을 하시느라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군법당 불사에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줘 감사하다”면서 “한푼의 기금도 헛되지 않게 여법하게 불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월주스님



정련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도 “전국의 사부대중의 보시로 총불사비 120억원 가운데 65%정도를 모금했다”면서 “내년 부처님오신날까지 3500명의 군장병이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법당이 여법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인탁 기자

문광부 1차관 곽영진 청불회 부회장 내정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청와대불자회 부회장인 곽영진(54세·사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지난 16일 내정됐다. 곽영진 차관 내정자는 1957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한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곽 차관 내정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과 문화산업국장, 종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3월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청와대불자회 부회장 소임을 맡을 만큼 신심이 돈독한 불자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시장자본주의 대안은 불교·연기자본주의”

윤성식 교수, 종무기관 강연회서

8가지 경제윤리 제시 불교는 돈으로 인한 고통해결 기여 ‘강조’

“자본주의가 인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경제위기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9일 ‘불교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중앙종무기관 강연회에서 불교자본주의를 시장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불교자본주의를 ‘연기자본주의’로 정의를 내리고 소비자와 경영인 정부정책 등 모든 것은 연기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익 또한 독자적인 실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교수는 “기업체는 경쟁기업과 소비자, 부품공급자, 하청기업, 관련 과학기술 등에 의해 임시로 존재할 뿐”이라며 “자본가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 판매할 수 있었던 것도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시장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독점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좇으라고 조언한다”며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오직 소비자를 위한 제품 생산을 더욱 높은 가치로 여긴 스티브 잡스도 좋은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불교경제윤리 원칙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무아적 소유 등에 기초한 경제윤리, 소득의 4분의1은 저축하고 소비에 봉사하는 존재가 되지 말 것을 충고하는 절제, 분수에 맞는 경제행위 등을 원칙으로 소개했다. 21세기에 불교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한 윤 교수는 “불교는 돈으로 인한 고통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자본주의 그 어떤 대안도 불교자본주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내년 일본대회서 다시 만나자”

일한불교교류협회장, 조계종 총무원 예방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전통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스님 등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임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열린 제3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가차 방한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임원들은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본행사와 여주 신륵사와 서울 조계사 참배에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은 “2박 3일 동안의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행사가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회향하게 돼 다행”이라며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제33차 교류대회에서 다시 반갑게 만나자“고 인사말을 건넸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회장 자승스님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왕성하게 취해주신 활동에 감사하다”며 “공동선언문에서 발표됐듯이 한반도 출신자 유골의 한국 반환과 한국불교문화가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일불교계 간의 교류가 더욱 더 증대되길 기원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공고

제13대 종정추대회의

종헌 제21조 및 원로회의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정추대회의를 소집하오니,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스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2555(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 **안 건** : 제13대 종정 추대의 건
- **문의처** : 원로회의 사무처 (02-2011-1865)

불기2555(2011)년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 산

故 지종스님 5주기 추모제 안내

지종스님께서 입적하신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생전 인연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5주기 추모제를 지내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 하소서

●일 시 | 2011년 **12**월 **4**일(음 11.10)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지종스님 추모회 회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61-16번지 남산빌딩 3층

●문 의 | 051)512-2858, 010-9508-7277

지종스님 추모회 회원일동 합장